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장 휘 숙* 이 영 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결혼생활 10년 전후의 30~40대 성인 남녀(남: 167명, 여: 201명)를 대상으로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4범주의 성인 애착척도와 의사소통 능력척도 그리고 결혼관계 만족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이 안정형 애착의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고 몰입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은 안정형과 두려움형 애착의 여성들과 유사한 정도의 만족을 경험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중 타인지향성은 남성들의 그리고 표현력과 자기노출은 여성들의 결혼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회귀분석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만 의사소통 능력은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들이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닐 때는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닐 때는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애착유형과 상관없이 의사소통 능력만이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애착, 애착유형, 의사소통 능력, 결혼관계 만족

애착이 결혼한 부부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애착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애정적 유대관계를 결정하는 기저요인이기 때문이다. 원래 애착이란 양육자에 대한 애정적 유대만을 의미하였으나, Bowlby(1969)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의해, 애착은 전생애 동안 계속되고 어떤 유대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

된다(장휘숙, 1997a). Bowlby에 의하면, 영아는 애착인물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세트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작동모델로 기능한다. 그 결과 영아가 형성한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유형의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되고 이후에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때 각기 상이한 행동을 하게 된다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는 것이다.

성인기 동안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주된 관계맥락에는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다. 일찍이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관계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형, 회피형, 그리고 불안/양가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파트너에 대해 상이한 유형의 사랑을 경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개발한 3범주의 단일문항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기초되어 있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impson(1990)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어, 안정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형 혹은 불안/양가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더 큰 상호의존과 더 큰 전념, 더 큰 신뢰 및 더 큰 만족으로 특징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불안/양가형 애착이나 회피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파트너와 부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같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유형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성인애착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애착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Brennan과 Shaver(1995)는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신뢰롭고 헌신적이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하는 반면, 회피형이나 불안/양가형 애착의 소유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낮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데이터 커플을 연구한 Jones와 Cunningham(1996)도 낭만적 신념과 자기

존중감 및 성역할을 통제한 후에도 애착양식이 커플간의 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파트너 중 한 사람이라도 불안이나 회피 점수가 높으면 두 가지 점수가 모두 낮은 커플보다 유의하게 낮은 관계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만족을 연구한 Egeci와 Genocöz(2006) 역시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계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파트너와 갈등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높은 관계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함께 배우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Kobak과 Hazan(1991)의 연구에서도 안정형 애착의 전형적 특성인 자신과 배우자를 신뢰하고 배우자를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 안정성과 결혼관계 만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한 부부 322쌍을 연구한 Senchak와 Leonard(1992)도 부부 모두가 자신을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로 기술한 커플들이 부부 어느 한편이나 양편이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한 커플들보다 더 큰 친밀감과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Paley와 Cox(1999) 및 Banse(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가족체계 이론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구성원들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장휘숙, 1995),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찍이 Jacobson과 Margolin(1979)은 부부간의 대

화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이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 능력은 갈등 상황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Mayer, 2000), 저조한 의사소통 능력은 배우자들 사이의 관계 만족을 저하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잘것없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부부들은 대화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대편을 오해하게 하고 화나게 함으로써 두사람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변화되기 쉽다. 더욱이 부부간에 의사소통 문제가 증가할 때, 부부의 문제해결능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다시 부부관계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을 뿐아니라(Bradbury, Cohan, & Karney, 1998; Kiecolt-Glaser & Newton, 2001) Egeci와 Genoçöz (2006)는 대학생 남녀커플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의사소통 능력은 관계만족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한주리, 허경호, 2004) 역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의사소통능력은 관계만족 뿐 아니라 애착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Feeney(1995)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표현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61쌍의 대학생 데이터 커플을 연구한 Tucker와 Anders (1999)도 불안/양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민감성이 부족하고 낮은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파트너의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조하다고 보고하였고, Mikulincer와 Nachshon (1991) 역시 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민감성이 부

족하고 자기노출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여 애착양식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개인의 의사소통 양식을 연구한 Guerrero(Guerrero, 1996; Guerrero & Jones, 2003, 2005)는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의사소통시에 웃음 떤 얼굴로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거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적이지 못하고 타인지향성이 부족하며 상대편에게 냉담하고 자기노출을 억제하므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두려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사교적이지 못하고 표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었다.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역시 지나치게 표현적이고 부적절하게 또 때로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에 역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이와같이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애착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Feeney(1994)의 지적대로, 10년 정도의 결혼기간은 애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기간 10년 전후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애착질문지와 의사소통능력 질문지 및 결혼관계 만족 질문지를 사용하여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규명하려고

한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이므로 독특한 의사소통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선행연구로서 먼저 배우자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역할을 먼저 검토 하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유능한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Kraft & Nickhel, 1995), Feeney(1994)의 연구에서 지적된 대로 의사소통 능력의 역할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더 큰 불만과 갈등을 경험 한다는 연구결과들(Feeney, 1994; Vangelisti & Daly, 1997)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애착, 의사소통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성차의 영향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과 애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결혼생활 10년 전후의 30대-40대의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들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연구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체 368명(남: 167명, 여: 201명)의 남녀 성인들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12.7($SD=6.567$)년이었고 이 중 90%

의 남성과 48%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관리/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46.7%) 그 다음은 전문직(18.0%), 자영업(13.8%), 생산직, 서비스업(11.4%) 순이었으며, 여성들은 자영업(12.9%), 관리/사무직(11.4%), 서비스업(11.4%) 및 전문직(11.4%)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슷 하였다. 또한 남성들의 84.4%와 여성들의 79.6%가 핵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성 39.68($SD=5.621$)세, 여성 40.12($SD=5.338$)세였다. 질문지 자료들은 연구자에 의해 개별면접을 통해 수집되었고 검사시간은 20-30분이 소요되었다. 2007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약 15일 동안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1) 애착척도

장휘숙(1997b)의 연구에서 확인된 대로 4범주 애착양식이 3범주 애착양식보다 개인의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개발하고 장휘숙(1997b, 2002)이 번안한 단일 문항의 4 범주 애착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자기모델과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타인모델을 포함하므로 모두 4가지 유형의 애착 양식이 분류될 수 있다. 즉 자기와 타인 양자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갖는 안정형 애착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갖는 거부형 애착,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갖는 몰입형 애착 그리고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 모델을 갖는 두려움형 애착이 그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은 네 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고 그 중에서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유형 하나를 선택하였다.

2) 의사소통 능력척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Rubin과 Martin(1994)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지향성(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4문항), 표현력(문항 예: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3문항), 자기주장성(문항 예: 나는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4문항), 그리고 자기노출(문항 예: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3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전체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타인지향성 .723, 표현력 .766, 자기주장성 .719, 자기노출 .721이었다.

3) 결혼관계 만족척도

Norton(1983)의 ‘결혼생활 질 척도(Quality Marriage Index)’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전체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결혼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60이었다.

결과

1.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에서의 차이

4가지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차이

표 1.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애착유형	남		여		전체	
	N	결혼관계 만족(SD)	N	결혼관계 만족(SD)	N	결혼관계 만족(SD)
안정형(a)	98	5.96(0.939)	114	5.23(1.401)	212	5.57(1.262)
거부형(b)	14	5.19(1.137)	19	4.57(1.390)	33	4.83(1.308)
몰입형(c)	33	5.25(1.482)	38	5.59(1.139)	71	5.43(1.311)
두려움형(d)	22	5.64(1.082)	30	5.34(1.133)	52	5.47(1.111)
전체	167	5.72(1.136)	201	5.25(1.333)	368	5.46(1.267)

표 2.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Tukey 사후검증
성	6.230	1	6.230	4.162*	
애착유형	14.580	3	4.860	3.246*	a>b
성 * 애착유형	15.897	3	5.299	3.540*	
오차	538.917	360	1.497		
전체	589.248	367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함

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성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성과 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성: 남, 여)×4(애착유형: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며,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 작용 효과($F(3, 360)=3.540, p<.05$)가 유의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정형 애착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 210)=19.580, p<.001$) 남

성($F(3, 163)=4.708, p<.01$)과 여성($F(3, 197)=2.600, p=.053$)의 애착유형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이 안정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였고,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이 거부형과 몰입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보다 그리고 몰입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이 거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과 달리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안정형 애착이나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성($F(1, 360)=4.162, p<.05$)과 애착유형($F(3, 360)=3.246,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만족을 경험하였고, 사후분석으로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거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을 계산하

그림 1.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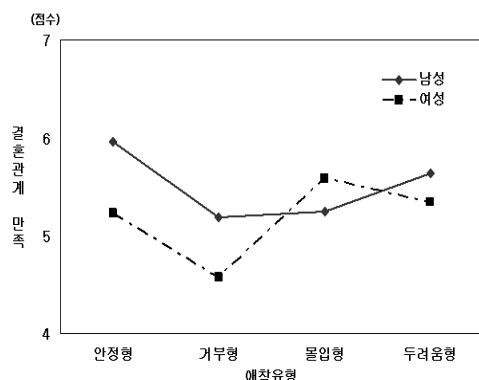


표 3.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만족에 대한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i>df</i>	평균자승	<i>F</i>	Tukey 사후검증
안정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28.638	1	28.638	19.580***	
거부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3.134	1	3.134	1.882	
몰입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2.037	1	2.037	1.188	
두려움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1.112	1	1.112	.899	
남성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	17.081	3	5.694	4.708**	a>b,c
여성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	13.534	3	4.511	2.600 [†]	c>b

[†] = .053

였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남성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 하위요인(타인지향성, 표현력, 자기주장성, 자기노출) 중 타인지향성과 결혼관계 만족($r=.217, p<.001$) 사이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표현력($r=.185, p<.01$)과 자기노출($r=.186, p<.01$)에서 결혼관계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타인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들은 표현력과 자기노출 능력이 높을수록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 하위요인들이 결혼관계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유의한 성차가 확인되어,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중 타인지향성($\beta=.279, p<.01$)이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표현력($\beta=.150, p<.05$)과 자기노출($\beta=.156, p<.05$)이 결혼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각각 17.9%와 5.5%의 설명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타인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과 높은 표현력과 자기노출 능력을 지니고 있

는 여성들이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3.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에서의 차이

애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 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성; 남, 여)×4(애착유형;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성도 애착유형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설정되었다. 표 5는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고, 표 6은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 전체에서는 성($F(1, 360)=3.901, p<.05$)과 애착유형의 주효과($F(3, 360)=10.792,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세 가지 애착유형을 지닌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력($F(3, 360)=8.230, p<.001$)과 자기주장성($F(3, 360)=3.860, p<.05$), 그리고 자기노출($F(3, 360)=2.962, p<.05$)에서는 애착유형의 주효과만이 유의미

표 4. 결혼관계 만족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표준오차	Beta	t	R^2
남	타인지향성	.509	.167	.279	3.051**	
	표현력	.010	.130	.006	.074	.179***
	자기주장성	.277	.170	.154	1.622	
	자기노출	.098	.157	.061	.622	
여	타인지향성	.049	.191	.019	.256	
	표현력	.318	.159	.150	2.002*	.055*
	자기주장성	.016	.174	.007	.089	
	자기노출	.323	.159	.156	2.033*	

표 5.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성별	애착유형	N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SD)			
			전체	타인지향성	표현력	자기주장성
남성	안정형	98	3.44(.494)	3.72(.549)	3.55(.660)	3.32(.598)
	거부형	14	3.16(.417)	3.28(.415)	3.31(.811)	3.21(.458)
	몰입형	33	3.07(.610)	3.17(.697)	3.26(.767)	3.03(.819)
	두려움형	22	3.08(.343)	3.22(.563)	3.14(.703)	2.96(.448)
	전체	167	3.30(.524)	3.51(.623)	3.42(.713)	3.21(.634)
여성	안정형	114	3.44(.399)	3.68(.512)	3.59(.628)	3.30(.535)
	거부형	19	3.26(.347)	3.43(.558)	3.44(.556)	3.30(.476)
	몰입형	38	3.30(.391)	3.56(.493)	3.23(.616)	3.20(.627)
	두려움형	30	3.20(.387)	3.44(.575)	3.17(.553)	3.13(.715)
	전체	201	3.36(.399)	3.60(.529)	3.44(.630)	3.26(.577)
전체	안정형(a)	212	3.44(.444)	3.70(.528)	3.57(.641)	3.31(.563)
	거부형(b)	33	3.22(.376)	3.37(.502)	3.38(.667)	3.27(.463)
	몰입형(c)	71	3.19(.515)	3.38(.623)	3.24(.685)	3.12(.722)
	두려움형(d)	52	3.15(.371)	3.35(.576)	3.16(.615)	3.05(.617)
	전체	368	3.33(.460)	3.56(.574)	3.43(.668)	3.23(.603)

표 6.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Tukey 사후검증
전체	성	.763	1	.763	3.901*	
	애착유형	6.335	3	2.112	10.792***	a>b,c,d
	성 * 애착유형	.837	3	.279	1.426	
	오차	70.444	360	.196		
	전체	77.709	367			
타인지향성	성	1.913	1	1.913	6.404*	
	애착유형	10.954	3	3.651	12.226***	a>b,c,d
	성 * 애착유형	2.602	3	.867	2.904*	
	오차	107.518	360	.299		
	전체	121.106	367			
표현력	성	.098	1	.098	.230	
	애착유형	10.491	3	3.497	8.230***	a>c,d
	성 * 애착유형	.155	3	.052	.122	
	오차	152.978	360	.425		
	전체	163.847	367			
자기주장성	성	.593	1	.593	1.658	
	애착유형	4.144	3	1.381	3.860*	a>d
	성 * 애착유형	.673	3	.224	.627	
	오차	128.803	360	.358		
	전체	133.586	367			
자기노출	성	1.058	1	1.058	2.401	
	애착유형	3.917	3	1.306	2.962*	a>b
	성 * 애착유형	2.556	3	.852	1.933	
	오차	158.696	360	.441		
	전체	165.772	367			

하였다. 어느 애착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현력에서는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몰입형과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기주장성에서는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현력 점수와 자기주장성 점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노출에서는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에게 부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결국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가장 높은 표현력과 자기주장성 및 자기노출을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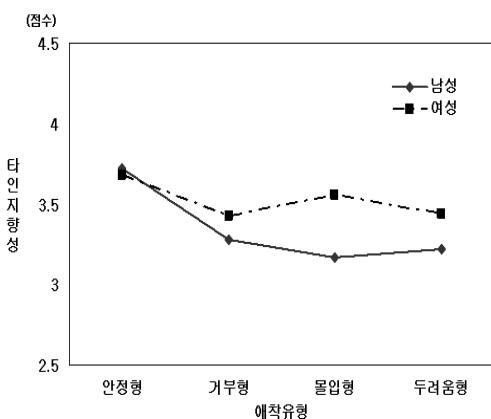


그림 2.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타인지향성

그러나 타인지향성에서는 성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F(3, 360)=2.904, p<.05$)가 유의하였다. 그럼 2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몰입형 애착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 69)=7.210, p<.01$), 남성들의 애착유형($F(3, 163)=10.804, p<.001$)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몰입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이 몰입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보다 더 높은 타인지향성을 나타내었고,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거부형과 몰입형 및 두려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보다 더 높은 타인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성($F(1, 360)=6.404, p<.05$)과 애착유형($F(3, 360)=12.226,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다른 세가지 애착유형을 지닌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타인지향성 점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역할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애착과 의사소통 능

표 7. 성과 애착유형에 따른 타인지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	Tukey검증
안정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069	1	.069	.246	
거부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204	1	.204	.805	
몰입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2.567	1	2.567	7.210**	
두려움형 애착유형에서 남녀의 차이	.647	1	.647	1.991	
남성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	10.688	3	3.563	10.804***	a>b,c,d
여성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	2.138	3	.713	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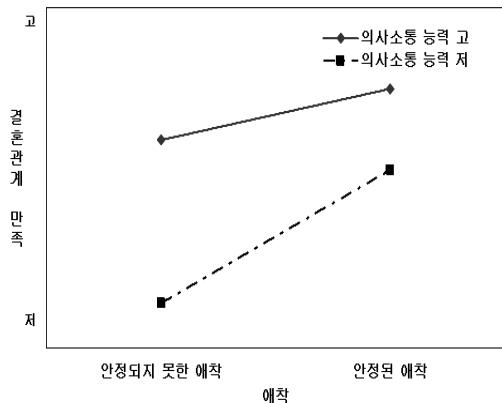


그림 3.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 패턴(남성)

력 및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결혼관계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애착유형에서 안정형 애착은 ‘안정된 애착’으로 그리고 몰입형과 두려움형 및 거부형의 애착은 ‘안정되지 못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들의 경우, 애착($\beta=.367, p<.01$)과 의사소통 능력($\beta=.315, p<.05$) 및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45, p<.05$).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는 안정되지 못한 애착과 안정된 애착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는 안정되지 못한 애착과 안정된 애착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역시 결혼관계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량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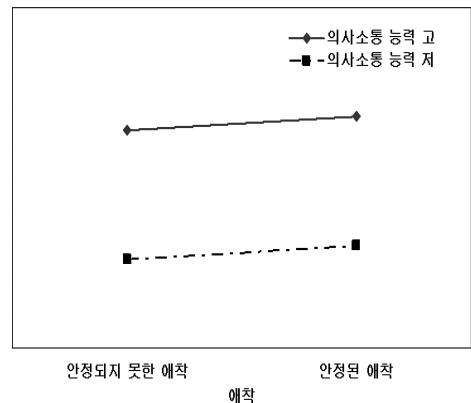


그림 4.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 패턴(여성)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애착($\beta=.301, p<.05$)과 의사소통 능력($\beta=.378, p<.01$)은 결혼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에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나타냄으로써, 애착유형과는 상관없이 의사소통 능력만이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논 의

결혼생활 10년 전후의 30~40대 성인 남녀(남: 167명, 여: 201명)를 대상으로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4법주의 성인 애착척도와 의사소통 능력척도 그리고 결혼관계 만족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애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과

결혼관계 만족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은 거부형과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물론 안정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여 가장 높은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몰입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은 거부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함으로써 안정형 및 두려움형 애착의 여성들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능력 중 타인지향성은 남성들의 결혼관계 만족과 그리고 표현력과 자기노출은 여성들의 결혼관계 만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애착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안정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 즉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네가지 하위요인 중 표현력에서 몰입형과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자기주장성에서는 두려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기노출에서는 거부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타인지향성에서는 몰입형 애착을 지닌 여성들이 몰입형 애착의 남성들보다 더 높은 타인지향성을 나타내었고,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거부형과 몰입형 및 두려움형 애착의 남성들보다 더 높은 타인지향성을 보였다. 또한 남성들의 경우에만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작용항이 결혼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은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의 결혼관계 만족은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

니고 있을 때보다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애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상관없이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여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들(Banse, 2004; Feeney, 1994; Kobak & Hazan, 1991; Senchak & Leonard, 1992)과 일치되게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분명해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큰 관계만족을 경험하여 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성차의 가능성을 제시한 Simpson(199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결혼생활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들(장휘숙, 1995; Wu & DeMaris, 1996)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특이하게도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거부형 애착의 여성들보다 더 큰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하고 안정형 및 두려움형 애착의 여성들과 유사한 정도의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모델은 부정적이고 타인모델은 긍정적일 때와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보다 자기모델은 긍정적이고 타인모델은 부정적일 때 가장 낮은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예상한 대로 의사소통 능력은 남녀의 결혼관계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됨으로써 선행연구들(장휘숙, 1995; Bradbury, Cohan, & Karney, 1998; Egeci & GenoçÖz, 2006; Mayer, 2000, Noller & Fitzpatrick, 1991)과 일치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 중 타인지향성은 남

성들의 결혼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표현력과 자기노출은 여성들의 결혼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함으로써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남성들은 낮은 타인지향성을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uerrero와 Jones(2005)의 지적대로 남성들이 파트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감을 표시한다면, 파트너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높은 결혼관계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전통적인 여성적 성역할 특성과 일치하는 여성들의 표현력과 자기노출은 배우자와의 갈등시에도 자신을 허심탄회하게 노출하고 같은 원인이나 해결방식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부부간의 만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행연구들과 일치되게(Guerrero, 1996; Guerrero & Jones, 2003, 2005), 4범주의 애착양식 중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유능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시에 웃음 떤 얼굴로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대조적으로 표현력이 낮은 몰입형과 두려움형의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노출 수준이 낮은 거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저조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해 제안된 4범주의 애착양식이 갖는 특정적인 자기모델-타인모델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특히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표현적이고 때로는 부적절하게 또 때로는 무차별적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의 경우에만 의사소통 능력이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상관없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만 결혼관계 만족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국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안정된 애착과 안정되지 못한 애착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는 애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지니고 있는 애착유형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관계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물론 성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Piaget의 인지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내적 작동모델의 변화를 설명한 Kobak과 Hazan(1991)은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 인지구조의 조절 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작동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은 이미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30-40대의 성인 남녀이므로 결혼생활을 통하여 부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애착유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부의 애착유형은 결혼관계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더욱이 남성들의 저조한 의사소통 능력은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과 일치하는 특성이므로 이 때에는 애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결혼관계 만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남성들의 경우에만 의사소통 능력이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 사이를 조절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부의 결혼관계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들은 타인지향적 의사소통 능력을 지녀야 하고 여성들은 표현력과 자기노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달라지면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

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3자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부부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부부 두사람의 독특한 의사소통 패턴을 지닐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부 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패턴의 차이는 물론 양자가 애착과 결혼관계 만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양식 척도만을 사용하여 성인 애착을 측정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애착척도나 Brennan과 Clark 및 Shaver(1998)가 제작한 연속적 애착척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애착척도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휘숙(1997a).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439-454.
- 장휘숙(1997b).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한주리, 허경호(2004).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18(4), 148-19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nse, R. (2004).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Evidence for dyadic config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73-28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dbury, T. N., Cohan, C. L., & Karney, B. R. (1998). Optimizing longitudinal research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marital dysfunction.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279-3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ad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s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Egeci, I. S., & Gençoz, T.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kill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83-391.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 Relationships*, 1, 333-348.
- Feeney, J. A. (1995).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hips*, 2, 143 - 159.
- Guerrero, L. K. (1996). Attachment-style difference in intimacy and involvement: A test of the four-category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63, 269-292.
- Guerrero, L. K., & Jones, S. M. (2003). Differences in one's own and one's partner's perceptions of social skills as a function of attachment styles. *Communication Quarterly*, 51, 277-295.
- Guerrero, L. K., & Jones, S. M. (2005). Differences in conversational skills as a function of attachment style: A Follow-up study. *Communication Quarterly*, 53(3), 305-32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Jones, J. A., & Cunningham J. D. (1996). Attachment styles and other predictor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3, 387-399.
- Kiecolt-Glaser, J. K., & Newton, T. L. (2001). Marriage and health: His and her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72-503.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raft, R. H., & Nickhel, L. D. (1995). Sex-related differences in cognition: Development during early childhood.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249-271.
- Mayer, B. S. (2000). *The dynamics of conflict resolution: A practitioner's guid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1). Marital communication. In Alan Booth (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Minneapoli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aley, B., & Cox, M. (1999). Attachment and marital functioning: Comparison of spouses with continuous-secure, earned-secure, dismissing, and preoccupied attachment sta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80-597.
- Rubin, R. B., & Martin, M. M. (199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 33-44.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9, 51-6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Tucker, J. S., & Anders, S. L. (1999).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perception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403-412.
- Vangelisti, A. L., & Daly, J. A. (1997). Gender differences in standards for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03-219.
- Wu, X., & DeMaris, A. (1996).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epression: The effects of chronic strains. *Sex Roles*, 34, 299-319.

1차 원고 접수: 2007. 10. 12

수정 원고 접수: 2007. 11. 9

최종제재결정: 2007. 11. 10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Hwee-Sook Jang Young-J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with male and female adults of the thirties and forties in the first decade of marriage. ANOVA revealed men with secure attachments ha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ones with other attachment styles. Among 4 dimension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ltercentrism explained significantly the marital satisfactions of men and, expressiveness and self-disclosure explained significantly that of women. Also women and the one with secure attachments had higher communication competence than their counterparts. Regression analysis found the man's communication compet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s of attachments and marital satisfaction, while women's communication competence did not interact with attachments.

key words: attachment,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marital satisfaction